월요논단

화장실의 품격

김 천 석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대표

여행 중에 만난 스님 셋이서 각자 저희 절이 크다고 자랑을 한다.

한 스님이 "우리 절은 집은 작지만 가마솥이 어떻게 큰지 죽을 쑤면 배를 띄우고 노질을 해들어 가서야 그 죽을 휘휘 젓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우리 절에는 모두 보잘 것 없어도 다만 방 하나가 어떻게 크고 넓은지, 방안에 있는 스님들과 인사하는 데만도 하루 종일 걸린다오 하하하"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만 있던 스님 한 분은 가래 손을 치면서 "가마솥이며 방도 굉장하지만 우리 절 뒷간만은 못하네요. 우리 절 뒷간은 어찌나 크고 깊은지 아침에 가서 뒤를 보면 저녁때나 돼야 밑바닥에 퐁~덩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둥소리 같습니다."

주말이면 숲길이나 오름을 오른다. 지난 주에도 어느 숲길 걷기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시설에, 자동 세정시설인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어 은근 놀래기도 하여 혼자 피식피식 웃으며 화장실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떠올려 본다.

월요일 아침부터 무슨 화장실 이야기냐 하겠지만 예로부터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 쾌식, 쾌면, 쾌변 등 삼쾌를 이야기 한다. 요즘처럼 슬로우 라이프와 웰빙을 따지는 시대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독일 어느 호텔에서의 일이다. 볼 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 하는데 아무리 둘러 봐도 물 내리는 장치가 없다. 조급한 마음에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잠깐 호흡을 가라앉히며 찬찬히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 하얀 타일 벽이었는데 그 중 하나의 타일에 빠알간 장미꽃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뭐지? 하면서 살짝 만졌더니 콰르르 소리와 함께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대만 관광지 어느 곳엔 남자 화장실 입구에 봄 춘(春)자가 그려져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여자 쪽을 힐긋 쳐다봤더니 春자를 거꾸로 뒤집어 달아 놓아 나를 웃게 하던 기억도 있다.

물론 청결은 기본이고 나라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문화를 유머러스하게 도입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 화장실을 보자. 많이 깨끗해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바닥은 젖어있고, 소변기 주변은 지저분하여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눈높이엔 이런저런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들이 어지럽게 붙어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남자들은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그걸 겨냥하여 쏘아대는 습관이 있다한다.

누가 특허를 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섭지코지 아쿠아플라넷 화장실 소변기에는 아래쪽에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남자들을 한발자국 앞으로 유인하는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스님들도 몸을 담고 있는 절을 자랑하듯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보다. 그런 심리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를 있게 했고, 거기에 응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앞 다퉈 응모하는 풍경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

예로부터 화장실은 문화의 소산이자 그 집 주인의 문화 수준을 엿보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잘 지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축물의 화려함이나 대리석, 비데 같은 호화시설로 변기 몇 칸짜리 공중화장실을 3억이나 들이며 지었다는 뉴스에는 한숨과 함께 화가 나기도 한다.

화장실은 청결하고, 편리하고 편안함이 생명이다. 화장실의 품격은 시설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 문화가 담겨져 있는 그런 화장실이면 좋겠다.

열린마당

스마트 졸업식이 대세다

오 태 욱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벌써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다음달 5일이면 영주고를 시작으로 2월 20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릴 예정이다. 과거 선생님과 부둥켜 안고 아쉬움에 늦도록 모교를 떠나지 못했던 기억, 서로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 문득 생각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강압·폭력적 '졸업식 뒤풀이'란 잘못된 문화가 등장하면서 이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사라져 갔다. 아쉬움이 눈물 대신 계란과 밀가루가 날아다니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 대신 시내 한가운데서 교복을 찢고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다행히 작년에는 경찰의 선제적 예방순찰 등으로 불상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순찰 결과 오히려 졸업식 문화에 새로운 스마트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수 있었다. 각 학교에서 졸업식 행사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담아 각종 공연과 춤, 음악이 어우러진 문화로 정착하고 사랑스런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행사 등 학생과 교사 스스로 의미있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졸업식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올해에도 이런 스마트한 졸업식 문화를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어 한창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출발점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뜻이 되어야 할 때이다. 이제 막장 졸업식 STOP. 스마트 졸업식이 대세다.

콧대가 무색

1988. 12. 5 등록번호 가- 81호(日刊)
1989년 4월 22일 창간
한라일보
우 690- 711 제주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구. 제주시 삼도1동 568- 1)
발행·편집·인쇄인 강만생 편집국장 오태현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대표전화 (064)750-2114 독자제보 (064)750-2214
<월정요금 10,000원, 1부 500원> FAX (064)752-9790

편집국	논설위원실	(064) 750-2152	구독신청·배달	독자서비스센터(광고영업국)	(064) 750-2330
	편집부	750-2250		동제주센터	725-1137
	정치부	750-2290		서제주센터	755-6119
	경제부	750-2223		용담센터	757-5959
	사회교육부	750-2235		신제주센터	744-8259
	제2사회부	732-5552		노형센터	745-061
	문화체육부	750-2280		1	
	사진부	750-2260		화북센터	759-4860
광고·접수	광고영업국(본사)	(064) 750-2828		아라센터	752-9906
	FAX	752-7448		외도센터	713-7999
	서귀포지사	732-5553		구좌센터	782-5318
	FAX	732-5559		조천·함덕센터	784-4724
	서울지사	(02) 722-6567		애월센터	742-5606
	FAX	(02) 743-6509		한림·한경센터	796-0017
	부산지사	(051) 894-0163		서귀포센터	733-5277
	FAX	(051) 896-7500		서귀남부센터	733-5237
				신서귀센터	739-9741
				중문센터	738-9695
				예래센터	738-2628
				성산·표선센터	784-8464
				남원센터	764-5164
				안덕센터	792-5122
				대정센터	794-1017

일본지사(03)-5612-2703 FAX: (03)-5612-2704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상을 향해 말문을 여십시오 (분량은 900자 내외)
주소 : 제주시 서사로 154 전화 : 064)750-2114 FAX : 064)752-9790
E-mail : hl@ihalla.com 홈페이지 : www.ihalla.com (독자투고(기고))

» ...‡

복수 상임위원회制 도입 시기상조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추진중인 '복수(複數)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과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원들이 찬·반으로 갈려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용역보고서 미흡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복수 상임위원회는 의원 1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정역량의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名分)과 함께 현행 단수 상임위 제도에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했으며 이달 24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복수 상임위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 격론(激論)이 벌어졌다. 도입 찬성측 의원들은 의원들의 전문성 활용도 및 책임감 제고, 집행기관과 이해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축소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또 특정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경험과 지식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를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의원 1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를 맡을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약화(弱化)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단점으로 꼽았다. 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절대적으로 시간 부족이 우려되어 역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김태석 의원은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합리적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복수 상임위제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생각한다. 찬·반 논란에서 보듯 의정역량의 전문성 강화는 명분일 뿐, 되레 약화될 소지가 많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경험축적 기회 제공 역시 가당치 않은 이유다. 특정 상임위 선호 및 기피현상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다.

복수 상임위 제도는 향후 인력증원 요구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상임위 참석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업무수행 차질도 예상된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6월 복수상임위 조례를 만들었다가 12월에 폐지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도민보다 도의원들을 위한 복수 상임위제도 도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돌담 보전·관리방안 마련 서둘러야

제주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보전·관리 및 활용에 전기(轉機)를 맞고 있다. 인식 확산과 함께 돌담밭을 지켜 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 돌담의 총 길이는 3만6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2만2000㎞ 가량이 밭담이다. 구좌읍 평대·행원, 조천읍 북촌, 애월읍 곽지·신엄, 한경면 용수리 일대의 밭담이 특히 경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 밭담은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농업·문화유산이다. 하지만 흔하디 흔한 풍물로 치부되면서 방치·훼손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밭담의 훼손율이 11%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농업의 쇠퇴·농업형태의 변화 등으로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돌담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들려 온다.

완도군은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구들장논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다. 효율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법적 지원근거 및 지원방안을 모색중이다. 지역주민과의 '농어업 유산 자율관리협정' 체결 등도 계획하고 있다. 다랑이논으로 유명한 남해군의 노력은 더욱 구체적이다. 국민·기업·단체로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농지를 매입, 주민들에게 무상 임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 오른다. 유채 등 농작물에 한해 적용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밭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밭 한평 사기운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GIS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 ▷향토문화예술 진흥 지원 및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돌담전문인 DB 구축 등 의견도 나온다.

제주 돌담밭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登載)키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제주자치도는 T/F팀 구성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별도 기구를 만들어 전수조사(全數調査)에 나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가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없이는 돌담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 할 수 없다. 시나브로 사라져 가는 돌담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이면서도 총체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도정 소식

◆ 설맞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할인 및 경품행사 안내
□ 전시판매장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 할인행사기간 : 1.24~2.8일(16일간) □ 전시 할인 상품 : 농·수·축산품을 비롯한 가공식품, 공산품, 향장품, 공예품 등 현재 전시판매장 및 이제주몰에 입점한 업체 161개, 2,200여개 전 품목 □ 주요 이벤트 - 행사기간 중 품목별 할인 행사 : 전 품목 5~25%할인 -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 3만원이상 구매 고객 - 최우수 구매고객 경품 이벤트 : 1등 ~ 4등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침구청소기,자전거) - 행운을 잡아라 ! : 윷놀이, 투호던지기 활용한 경품 이벤트(초콜릿, 비타민, 공예품 등) - 추가 할인 이벤트 : 50만원이상 구매 시, 구매가격의 5% 할인 - 택배비 지원 : 행사기간 중 택배비 2,000원 할인(100만원이상 무료) □문의 : 기업지원과(전화 : 710-2526~9)

◆ 겨울철 단전·건보료 체납가구 등 발굴 지원 안내
□ 대상 : 단전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 및 최근 6개월간 건보료 체납,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또는 신청했으나 탈락, 정신보건센터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자, 독거노인·중증장애인가구 등 □ 지원내용 -단전가구 전기요금 : 생계곤란 사유로 체납 확인시 1회 50만원 범위 내 연체 요금 지원 -단수·단가스, 건보료 체납 :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동절기 3개월 우선지원,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 : 복지청소년과(전화 : 710-2816)/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728-2471)/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760-2531)

◆ 예비사회적 기업지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안내
□ 개요 -신청접수기간 : 2013. 1. 25(금) ~ 2013. 2. 8(금) 18:00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일자리창출사업(재정지원) 지원 내용 - 지원인원 : 1인이상 50인 이하(육성위원회 심사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지원내용 : 1인당 1,107천원 □ 문의 : 경제정책과(전화 : 064-710-2375, 064-710-2654)/ 제주사회적기업 통합지원 기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전화 : 064-721-1988)

◆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 보증 추진
□ 보증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초과),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상점권 □ 대상채무 : 운전자금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보증한도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본건 포함 재단 총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4년 이내 (최초 대출 2년, 연장포함 4년 이내) □ 대출금리 : 4.8% 이내(일반대출 6%, 햇살론 10% 이상) - 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제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신협 □ 보 증 료 : 고정 0.8% □ 시행기간 : '13. 1. 22 ~ 한도 소진 시까지 □ 문 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전화 : 064-758-5740)

제주시정 소식

◆ 『2013 무사안녕, Healing in Jeju』 2013 제주들불축제
○ 축 제 명 : 2013 (제16회) 제주들불축제 ○ 주 제 : 2013 무사안녕, Healing in Jeju! ○ 기 간 : 2013. 3. 8(금) ~ 3. 10(일) [3일간] ○ 장 소 :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평화로변) ○ 주최/주관 : 제 주 시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 날짜별 테마구성 운영(34개 종목) ◈ 첫째 날(3. 8) : 무사 안녕의 날 - 2000만 관광객 유치 기원제, 전도 풍물 만장 기행전,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개막행사 "제주 환상곡", 희망기원 횃불대행진, 오름 "눌" 태우기 등 ◈ 둘째 날(3. 9) : 도민 통합의 날 - 도민대통합줄다리기, 넉둥베기 경연(외국인 특별전 포함), 마상마예공연, 제주어말하기 경연, 레이저 퍼포먼스, 도민화합 음악잔치 등 ◈ 셋째 날(3. 10) : 희망 기원의 날 - 세계가 제주로!, 열린무대 말춤 페스티벌, 폐막행사 "제주신명,세계로" 대형오름 "눌" 점화, 오름정상 화산분출쇼, 오름불놓기, 오름정상 연화 연출 등 ⊙ 부대행사(20개 종목) ◈ 새별-이달오름 등반체험, 제주의 소릿길 체험, 축제사진 전국콘테스트, 잔디썰매장 운영, 희망의 메시지 써주기, 전통악기 체험, 기마대와 함께하는 포토존, 축제캐릭터 만들어봐요, 체험 승마교실 등 ☞ 문의 : 관광진흥과(☎ 728-2751~6)

◆ 「2013.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명칭 : 2013.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3. 1(금) ~ 6. 30(일) [4개월]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1. 31(목) ○ 모집인원 : 250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신청서류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기타 필요서류 ○ 근무여건 - 주 28시간 이내(1일 8시간 이내 근무), 임금 시간당 4,860원 단, 만65세 이상인 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월 평균임금 : 70만원 중반(64세미만), 40만원 초반(65세이상) ☞ 문의 : 지역경제과(☎ 728 - 2795),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감귤당도 1브릭스 높이기 추진을 위한 감귤원 1/2간벌
○ 사업기간 : 2013. 1월 ~ 5월 ○ 신청기간 : 2013. 1. 3 ~ 1. 31 ○ 신청접수 : 농감협(조합원), 읍면동(비조합원) ○ 지원기준 : ha당 1,200천원 ☞ 문의 : 농정과(☎ 728-3332)

◆ 겨울철 대설특보 등에 대한 협조사항 안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자" ○ 시 기 : 대설특보 등 내 집 또는 내 점포 주변 강설 시
○ 행동요령 ○ 건축물관리자(점유 또는 이용자 포함)는 건축물 주변의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래 등 재료를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재난관리과(☎ 728 - 3751~5)